

'사랑의 바자' 지역민 문화축제 장으로

광주 월광교회 수익금 이웃돕기

15·16일 이틀간 … 각종 공연도

광주 월광교회(담임목사 김유수·사진)는 오는 15~16일 이틀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교회 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를 개최한다.

월광교회는 '사랑의 바자'를 통해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은 물론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익금 3천만원 전액을 82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는 바자는 단순히 먹거리, 의류·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넘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승격했다.

이번 행사에는 바자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했다.

사물놀이 공연과 노래자랑, 맘마미아 주연 가수인 이재영씨의 노래 공연과 각종, 판소리·통기타 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또 풋아트, 물幡, 퀼트, 클레이아트, 손뜨개, 전연화장품 및 예술 도자기 작품의 전시와 판매도 진행되며 사랑의 메시지 써주기, 방문파 써주기, 핸드 페인팅, 옷이나 손수건에 그림 그리기 등 참여 행사도 이어진다.

김유수 담임목사는 "사랑의 바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랑 나눔 장터"라며 "가족과 함께 문화행사도 구경하고 바자에도 참여해 작은 사랑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75-04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인환 시문학상'에 문명란 시인

'제1회 박인환 시문학상' 수상자로 화순 출신 문명란(73·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는 2000년 박인환문학상을 시작, 문학상을 제정하고 있으나 열번째를 맞는 본상의 위상정립을 위해 올해부터 첫 시문학상을 신설, 문명란 시인을 초대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 시인은 1962년 '현대문학'지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가로수' '꽃밭' 등으로 등단한 이후 믹족통일시인으로 활동하며 '정당성' '죽순발'에서 '땅의 연기' '동소산의 미술사' '인연서설' 등 다수의 시집을 냈다. 요산문학상, 한림문학상, 향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올해의 농업인상' 6명 선정

전남도는 올 영농 현장에서 농업 개발 등 창의적인 노력으로 소득증대에 공헌해온 농민에게 수여하는 농업인상 대상자를 8일 최종 확정했다.

올해의 농업인상 선정자는 ▲고소득 쌀생산 분야 화순 김병철(46·씨) ▲원예 특용작물 분야 고흥 신강식(46·씨) ▲유동가공분야 담양한과 명진식품 대표 박순애(55·씨) ▲축산분야 국선 조선익(50·씨) ▲임업분야 강진 임해진(49·씨) ▲농산물 수출분야 남도식품 김용권(49·씨) 등이다.

이번 선정은 고소득 쌀 생산·원예 특용작물·가공·축산·임업·농산물 수출 분야 등 6개 분야별로 혁신 실사 등을 통해 결정됐다.

/최권일기자 cki@



김병철씨



신강식씨



박순애씨



조선익씨



임해진씨



김용권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박운호·박옥자씨 차남 종구군 신영옥(조선일보사 광주광장 발송부)·손정희씨 차녀 서경양=10일 (토) 오전 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파이어아이)

▲최길성·윤혜성씨 장남 승용군 김영배·양귀연씨 차녀 명화양=10일(토) 낮 12시20분 광주 오델리아 웨딩홀 1층.

▲나두임씨 장남 김정철군 서봉 선씨 사녀 수영양=11일(일)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이 연(이연안과 원장)·고석순 씨 삼남 상훈군 이영대·정영씨 장녀 나연양=11일(일) 낮 12시 리마다 플리자 광주 4층(그랜드볼룸)

▲Edward Grant·Sandra Grant 씨 아들 John Grant군 김영진(광주



'양길 엄마처럼' 책 폐낸 한국과학영재학교 김양길(광주 동명중 출신)군 어머니 방숙희씨

"학원 안보내고 창의성 교육, 그게 옳았어요"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대신 책을 많이 사주고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등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 김양길(18·3년)에게 사교육을 한번도 시키지 않고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시킨 어머니 방숙희(46·씨)가 최근 '양길엄마처럼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워라'는 책을 폐냈다.

이 책에서 방씨는 사교육 도움없이 독서와 체험만으로 아이를 교육시켰던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면서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주지 않는 대신 스스로 호기심이 일도록 책을 보게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체험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세상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퍼즐맞추기와 카프라 놀이, 레고 등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줄 학교 성적 대신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

하라고 제안했다.

"한글을 떼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양길이에게 자연스레 책을 접하게 도와줬어요. 주로 그림이 그려진 과학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 궁금한 것은 다시 관련 책을 읽으면서 해결하고 또다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풀더라고요."

김군은 31권으로 된 패스칼세계대백과사전으로 혼자서 공부하며 모르는 것은 책 속에서 찾았다. 어떤 책은 많이 본 탓에 너털너덜해져 투명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도 있다. 특히 김군은 사설학원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 책을 보며 혼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방씨는 3~5곳의 학원을 다니는 데 드는 아들의 사교육비 대신 책 구입비용과 여행 경비에 교육비 대부분을 사용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족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는데 힘썼다.

"현재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대학 이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을 키워야 그릇이 큰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김군은 광주 동명중학교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기 했지만 특출난 인재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다양한 사고 능력을 기운 덕에 서술형으로 출제된 영재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씨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해야 한국영재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식의 조언은 하지 않는다. 그냥 아이와 함께 책 읽고, 놀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 놓아두라는 게 전부다.

방씨는 "양길이가 공부 재능을 태고 냈을 수도 있지만 자라오는 공부의 환경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들은 이 책을 보며 무조건 신봉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 관련된 여러 책을 보면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습득해 자녀 교육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글=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상무축구단 위해 2년간 뛴 선수들에 보답"

제대 선수 위한 사진전 여는 강현석 원장

제대를 눈 앞에 둔 광주상무축구단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사진전이 열린다. 하지만 사진전의 주인공은 선수들이 아닌 사진을 촬영한 강현석(45·강과대·사진) 원장이다.

광주상무축구단은 오는 11일 오후 3시1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일화와의 정규리그 27라운드 홈 경기를 맞아 뜻 깊은 행사를 연다. 오는 29일 제대하는 김명중, 김용대, 강민혁, 고슬기 등 21명의 선수들을 위해 2년간 활약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열기 때문이다.

원정 선수들까지 볼 수 있게 경기장 선수 출입 통로에 걸리는 이번 사진전은 지난 2004년부터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아미추어 사진작가 강원장이 제대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구단 내과 전문의 주치의로 위촉되기도 한 강원장은 의미있는 선물을 하기 위해 제대선수들의 사진들을 따로 모아 기념 액자로 제작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구단에 밝혔다.

원정 선수들까지 볼 수 있게 경기장 선수 출입 통로에 걸리는 이번 사진전은 지난 2004년부터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아미추어 사진작가 강원장이 제대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구단 내과 전문의 주치의로 위촉되기도 한 강원장은 의미있는 선물을 하기 위해 제대선수들의 사진들을 따로 모아 기념 액자로 제작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구단에 밝혔다.

정원장은 "광주상무축구단을 위해 2년간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온 선수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에 구단은 기념액자 200만원 가량의 제작 비용도 부담하는 강원장을 위해 선수단과 함께하는 전달식과 함께 작은 전시회 공간을 만들었다.

강원장은 "광주상무축구단을 위해 2년간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온 선수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주택계획 세미나

광주시가 체계적인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9일 오후 3시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서 관련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공공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이며, 조선대 조운준 교수 사회로 광주대 이영석 교수, 동신대학교 손승광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즐겁고 보람있는 일 찾아야"

안철수 교수 전남대서 '벤처기업 성장' 주제 강연

"백신을 연구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사장이 된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는 8일 전남대학교 응봉홀에서 열린 '안철수 연구소'에 본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의대교수의 삶을 버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벤처기업 경영을 택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강의를 듣기 위해 강당을 찾은 3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한 계기와 발전과정, 성공 스토리 등을 털어놓으며 학생들이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기를 당부했다.

그는 "의대를 다닌 7년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3시간 동안 백신을 만들고 6시부터는 다시 실험실로 가는 생활을 반복했다"며 "그러나 학위를 받고 의대교수로서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잘되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늘이 주신 기회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성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육신이 생기고 이것이 선택을 제약한다"며 당시 포기와



선택이 어려웠음을 털어놓고, "과거를 잊고 현재와 미래, 즉 내게는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인 백신 연구를 택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경영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안 교수는 CIH 바이러스, Y2K 바이러스, IMF 등 회사 경영 당시 수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소개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시기와 못되는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잘되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늘이 주신 기회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창·동문회

도시공사 사장·강명자씨 장녀 도연양=17일(토) 오후 1시40분 광주에벌루션웨딩컨벤션 1층(세이지홀)

▲고종석·이승일씨 차남 영율(연천 박병원내과 의사) 송운식(전 외환은행 본부장)·정현영씨 장녀 혜미양(강남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17일(토) 오후 5시 서울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피로연 10일(토) 오후 6~8시 광주교원공제회관 3층.

▲조대부고 15회 동창회(회장 장홍수) 월례회=15일(화) 오후 6시30분 백운사 회관. 062-236-3220.

▲고씨광주종문화회(회장 고석태) 이사회=12일(월) 오후 5시 북구 종흥동 광주종문화관. 062-367-9585. 010-4615-6784.

▲제32회 일고인 한마당=11일(일) 오전 9시 광주일고 운동장.

▲복성중 32회 동창회(회장 김일곤) 이유희=11일(일) 오후 9시 무등산(증심사 주차장 집결) 010-6554-6885.

▲재광문태 중·고등학교 동문회

▲제32회 일고인 한마당=11일(일) 오전 9시 광주일고 운동장.